

열녀/과부 서사의 새로운 판본(板本) - 텔레비전 드라마 <혼례대첩>,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밤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

손가인*·최연수**·김채경***

1. 서론
2. 전근대의 열녀 담론: 발화하지 못하는 피해자
3. 열녀/과부 서사의 드라마 판본(板本)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근 연이어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혼례대첩>,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밤에 피는 꽃>을 대상으로 열녀/과부 서사가 열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에 내포된 동시대적 메시지를 살피고자 한다.

여성의 성(性)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며 사회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열녀/과부 서사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재해석되면서 동시대 시청자들의 문제의식과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에 텔레비전 드라마의 열녀/과부 이야기에는 서사적·매체적 차원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세 드라마는 조선 과부들에게 가해지는 전근대적 열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직접 담아낸다. 하지만 열 담론을 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 돌싱, 비혼 등 동시대의 사회 현상을 다루기에 열녀/과부 서사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판본(板本)이라 할 수 있다. 수절과부라는 설정은 이타적 사랑을 강조하는 장치로 활용되며, 과거에는 결코 현실화할 수 없었던 과부의 해방과 자아실현은 21세기의 판본에서만 가능한 서사 내부의 성취이다.

그러나 상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매체적 특성은 제도의 폭력성을 간과하는 한계도 불러온다.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그에 따라오는 감금 생활과 종사 요구는 분명 제도적 폭력이다. 세 드라마 모두 로맨스를 활용해 여성들이 사회적 억압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낭만화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부의 해방은 법과 권력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설정된 절대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드라마 속 열녀/과부들의 판타지적인 결말은 전근대 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동시에, 동시대적 현실이 직면한 사회 문제도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열 담론의 새로운 판본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행복한 결말로 미봉하며 여전히 여성 주체를 소외시킨다.

(주제어: 열녀, 과부, 열 이데올로기, 매체성, 텔레비전 드라마, 혼례대첩, 열녀박씨 계약결혼, 던, 밤에 피는 꽃)

1. 서론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수절 과부를 주인공 삼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었다. KBS2 월화드라마 <혼례대첩>은 2023년 10월 30일~12월 25일 16회 방영됐고, MBC 금토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녀>은 2023년 11월 24일~2024년 1월 6일 12회, <밤에 피는 꽃>은 <열녀박씨 계약결혼녀>의 뒤를 이어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MBC 금토드라마로 12회 방영됐다.¹⁾

이전에도 조선의 과부나 기별부인(이혼녀)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있었으나, 열(烈) 담론이 작품의 주요 서사를 끌고 가지는 않았다. 반면 최근 연달아 방영한 세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두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남성에 대한 절개가 여성의 목숨보다 중요시되던 사회 제도 아래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폐 당한다. 열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하는 여성의 인생을 중심점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들 드라마를 살펴볼 만하다.

동시대의 작품 중 열녀 소재를 비교적 빈번히 활용한 것은 ‘전쟁미망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6·25전쟁 이후 시기의 영화였다.²⁾ 전근대의

1) 닐슨코리아 기준 각 작품의 전국 최고/최저 시청률(단위: %)은 다음과 같다. <혼례대첩>: 3.3(7회)/5.8(16회), <열녀박씨 계약결혼녀>: 5.6(1회)/9.6(6회), <밤에 피는 꽃>: 7.9(4회)/18.4(12회). <혼례대첩>의 최고 시청률은 2023년에 방영된 KBS 월화드라마 중 두 번째로 높다.(1위 <오아시스> <밤에 피는 꽃>의 최고 시청률은 기존 1위였던 <옷소매 붉은 끝동>을 뛰어넘어 MBC 금토드라마 시청률 역대 1위에 올랐다.

2) 노지승은 열녀 담론이 20세기 한국 영화에 부활한 맥락과 전유 방식을 논한다. 과부는 영화라는 뉴 미디어·테크놀로지에 의해 시각적 형식을 얻으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변화한다. 나아가 영화는 양반인 과부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머슴의 신체적 건강함을 부각하는데, 여기에는 죽은 남성들이 양반이라는 계급적 우위 하나로 산 여성들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노지승, 『주제 근대 전환기 한국 고전문학의 대응 20세기 열녀 담론과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열녀 표상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105-146쪽).

열녀/과부 서사가 근대 이후 사회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열 담론이 가진 재해석의 여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텍스트의 발표 시점이 2000년대 이전의 것인데다, 영화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보다 일상적인 장르인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대 사회의 화두를 더욱 기민하게 담아낸다. 대중성 및 상업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드라마는 변화된 사회 인식을 변주·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습적으로 구현하던 윤리적 통념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열녀를 소재로 한 근래의 논의가 주로 영화에 한정된 데다 대상 텍스트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최근 연이어 방영된 열녀/과부 소재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그 매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말해준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열녀/과부 문제를 언급한 선행연구로는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을 텍스트 삼은 조혜란·박혜성의 논의가 있다. 이는 조선의 열 이데올로기가 지닌 여성 억압적 성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적이며, 21세기의 콘텐츠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연구의 주요 텍스트는 원작 웹소설이어서 드라마의 매체적 성격이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논의의 초점은 열녀 화소가 사건의 시작이나 서사의 긴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한정된다. 열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측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낭만적 사

이민영은 열녀 기표를 구현하는 데 집중한 1960년대 신상옥의 영화가 전통적 한국 여성의 표상에 현재적 의미를 삽입하고 있다고 본다. 전쟁 이후 사회로 나온 ‘아프레길’, ‘자유부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부재하는 남편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열녀를 그림으로써 새로운 전후 여성상을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봉건사회만큼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열녀 담론’을 새로운 열녀 기표로 만들어 여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이민영, 「1960년대 문예영화와 전유되는 ‘열녀’의 기표들—신상옥 감독의 성춘향(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열녀문(1962)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100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461-493쪽).

랑의 서사를 뺐진하게 만³⁾드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열녀 소재가 왜 2024년에 소환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도 문제적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기정사실로 간주⁴⁾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더 이상 질문하거나 회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⁵⁾라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봉건사회의 열 담론이 현재의 시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고의 여지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열녀에게 가해지던 억압은 오늘날의 여성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고 있고, 과부에게 열녀로서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소급되었을 때 연상시키는 문제들도 다양하다. 결혼과 이혼, 경력 단절, 재혼과 가족 부양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의 원작⁶⁾ 작가 김너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의 수많은 열녀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개인 블로그에 밝힌다. 이데올로기를 위해 살해당한 여성들의 처지를 재조명하고 주인공 ‘박연우’가 그것을 해소하는 장면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다.⁷⁾ 드라마를 제작한 박상훈 PD는 “제약을 넘어 누군가를 구하고 사랑

3) 조혜란·박혜성,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에 나타난 열녀 화소 수용 방식에 대하여」, 『탈경계인문학』 제1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4, 228쪽.

4) 위의 글, 202쪽.

5) 위의 글, 230쪽.

6)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은 엔젤리크·김너울이 네이버웹소설에서 2020년 1월 3일~6월 9일 총 80화로 연재·완결한 웹소설이다.

7)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박지원의 소설 〈열녀함양박씨전〉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의 수많은 열녀들을 위해 연우가 윗전까지 고하는 장면을 썼을 땐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집필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세영 배우의 열연으로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세영 배우님 덕분에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well23/223314705133>, 검색일: 2024.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바람”이기에 제도적 억압을 뛰어넘는 ‘열녀 박씨’의 이야기가 “국가와 세대, 여러 장벽을 넘어서 폭넓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⁸⁾었다고 평가기도 했다. 원작자와 드라마 제작자의 발언은 여성 억압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동시대적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본고의 목표는 최근 연이어 드라마로 방영된 조선 배경의 열녀/과부 이야기들이 열녀 담론을 그리는 방식과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사 내용의 관찰 외에 드라마의 매체적 측면을 고려하며 텍스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봉건사회의 열녀/과부 이야기가 어떻게 동시대에도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지 재해석함과 더불어, 드라마 재현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은 고전 소재의 콘텐츠적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2. 전근대의 열녀 담론: 발화하지 못하는 피해자

여성의 성(性)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며, 각 사회의 관계 구조를 반영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⁹⁾ 정절을 지킨 여성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삼국시대의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의 <열전> 권8에 입전된 설씨녀, 도미 부인 등의 이야기가 있다. 이들의 여

05.20.)

8) <‘열녀박씨’ 박상훈 PD “해외 인기 비결? 모두 공감할 이야기” [N인터뷰①], 『뉴스1』, 2024.01.19., <https://www.news1.kr/articles/5294542> (검색일: 2024.05.20.)

9)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7쪽.

성 정절 강조에는 고려 예종과 인종 시기 당대 문벌귀족들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¹⁰⁾ 단순한 열 윤리 강조에 그친다기보다는, 군신의 신의를 중시하는 문벌귀족이 부도덕한 상층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읽을 수 있다.¹¹⁾

5세기 이후 삼국 통일 이전까지는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는 여성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권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시기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전장에 나가 부재중이더라도 가정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필요하다면 재혼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생존과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¹²⁾

고려시대까지 부인의 정절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한정되는 것이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수절이 함께 논해지기도 했다. 『고려사』에는 표창의 대상에 의부(義夫)가 포함되어 있다. 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재가하지 않는 남성을 일컫는 의부는 당시 절부(節婦)와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 조선이 여성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이전에는 절행이 여성만의 의무로 한정되지 않았다.¹³⁾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주자학적 이념이 받아들여졌고,

10)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 의식과 그 사상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편, 『조선 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27쪽.

11)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고전문학연구』 제11권, 한국고전문학회, 1996, 22쪽.

12) 권순형, 「고려시대의 수절 의식과 열녀」, 박용옥 편저,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63쪽.

13) 의부에 대한 표창은 단종 2년을 끝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세조실록』에는 표창의 대상에 '효자·순손·절부'만 있고 '의부'는 삭제되어 있다. 절부(節婦)는 남성의 사망 이후 재혼하지 않은 여성이며, 열부(烈婦)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남편에 대한 성적 종속성을 실천한 여성인데, 『고려사』에는 죽음을 강요하는 '열부' 혹은 '열녀'라는 명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34-39쪽 참조).

열 이데올로기는 극도의 남성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여성의 신체를 극단적으로 통제”¹⁴⁾하는 관념이 되기에 이른다. 1392년 건국 이후부터 500여 년 동안 조선에서 이루어진 ‘남성-양반’의 열 이데올로기 고착화 작업의 산물이었다.

세종 14년에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기점으로 충효열(忠孝烈)의 삼강(三綱)을 바탕으로 한 ‘부위부강(夫爲婦綱)’이 강조된다. 『삼강행실도』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을 윤리로 규정하고 국가에 유포했다.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 씨가 집필한 『내훈(內訓)』은 여성의 주체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을 토대로 극단적 남성 중심주의를 여성의 일상에까지 침투시킨다.

특히 1485년 성종이 공포한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은 재혼한 과부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 관료가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양반 관료 사회인 조선에서 이는 가혹한 연좌제였다.¹⁵⁾ 또한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성에게 재가 금지란 속수무책의 경제적 곤궁을 의미했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남성의 주권이 남성 사후에도 유효한 것이며, 과부의 정절은 목숨보다 중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더 많은 여성이 열녀가 되어 희생당한다. 선조 대 이후 여성의 열행은 수절하는 것을 넘어 남편을 따라 죽음에 이르러서야 인정받게 되었다. 조선은 마을 앞에 홍살문을 세우는 정려(旌閭), 가호(家戶)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 등으로 자살한 열녀를 표창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종속성을 극단적으로 강화한다. 표창에

14)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13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51쪽.

15) 강명관, 앞의 책, 65쪽 참조.

따라오는 가문의 명예와 금전적 보상 등은 열녀 표창 후보의 범람을 초래했고, 그 안에는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짜 열녀가 다수 섞여 있었다. 이 악습은 갑오개혁을 통해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기 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조선 후기에는 과부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제도에 재고를 촉구하는 담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박지원, 이옥, 정약용, 김택영, 김윤식 등 소수의 지식인이 열녀제도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¹⁶⁾ 여성 곤궁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이행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헌설화, 즉 야담에서 구체화 되기도 한다.¹⁷⁾ 특히 과부인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낸 이야기가 있어 주목을 요하는데, 『동야회집』에 전하는 양반가 노부인이 후손 여자들에게 유훈(遺訓)을 남기는 이야기가 그 예다. “혹시 불행하여 젊어서 과부가 되었을 경우, 스스로 잘 생각하여 가히 절개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위로 어른들께 고하여 곧 재혼을 해도 역시 크고 넓은 의미에서 편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예컨대 박지원은 <열녀함양박씨전 병서>에 동전의 모서리와 글씨가 닳도록 밤마다 그것을 굴리며 ‘혈기’와 ‘정욕’을 참아낸 양반가 부인의 고백을 실으며, 죽지 않고 살아남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가히 열녀라 할 만하다’고 말한다. 죽음만이 열녀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17)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12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100쪽.
야담에는 사족 여성의 재가가 이루어지는 기사가 다수 실려 있다. 가장의 주도 덕에 가능했던 ‘변칙적인’ 조처는 위장된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강경한 규범체제의 바깥으로 여성을 위치시킨다. 야담 속 여러 유형의 이야기 중에서도 재가 금지에 대한 반론을 기반으로 기술된 각편들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암시적으로나마 내포하고 있다. 한편 구술로 전승된 설화에서도 개가 과부 이야기를 살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개가하는 각편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진해서 재혼하는 여성들은 앞서 살핀 야담의 이야기와 달리 대개 사족 출신이 아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47-248쪽 참조).

18) “倘不幸, 青年寡居, 自量可守則守之, 否則上告尊長, 竟行改醮, 亦是大方便事.” 번역은 이

라는 부인의 말은 ‘수절’을 가혹하게 여기는 여성이 발화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이 가문에 ‘대대로 절개를 지키는 가풍이 형성되어 맑고 깨끗한 풍습을 이어왔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 여성의 발언이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귀결되고 마는 양상을 보인다.¹⁹⁾

발화의 당사자성을 고려할 때 열행을 목적으로 자결한 조선 사대부 과부들의 유서는 특기할 만하다. 화자가 일인칭인 유서는 과부들의 감정이 타인(남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채 드러난다. 하지만 유서 역시 당사자의 발언을 투명하게 읽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유서를 쓰면서도 부녀자에게 부여된 도덕과 윤리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⁰⁾ 자결을 목전에 둔 여성의 유서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더불어 주변인에 대한 다양한 상념을 토로하고 있다. 양반 계층의 남성들은 비지문이나 열녀전 등에 이들 유서를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모범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²¹⁾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은 주로 비판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²⁾ 열 이데올로기는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한쪽 성별에만 가해진

원명, 『동야휘집 완역본 제3책』, 김종균 외 역, 황금비, 2023, 561쪽을 참조했다.

19) 홍인숙, 『열녀X열녀: 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서해문집, 2019, 299쪽.

20) 한 예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재령 이씨(載寧 李氏, 1716~1784)는 1790년 정조의 명으로 정려를 받은 열녀이다. 이씨는 유서에 ‘마지못하여 죽노라’라는 말을 거듭 기록한다. 남편에 대한 열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생에 대한 의지에 반하는 것임이 이씨의 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재령 이씨, 『열부이씨유서』; 이수봉, 「규방문학에서 본 이조여인상」, 『여성문제연구』 제1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1, 20-21쪽).

21) 이홍식, 「조선시대 여성 유서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91쪽.

22) 대표적으로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강명관의 저서 『열녀의 탄생』은 유교적 가부장제가 정립한 조선 열 이데올로기의 선형적 역사를 구체적 사료와 수치로 집대성한 것으로, 열녀 담론의 명백한 폭력성을 직관적으로 주장한다.

국가 차원의 폭력이라는 점은 회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주류적 논의의 맹점을 지적하는 흥미로운 재해석으로 열녀가 된 여성들 내면에 사회적 자아실현 욕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의가 있다.²³⁾ 현대의 시선에서 제도의 일방적인 희생자로 대상화되는 조선의 과부들이 어쩌면 자발적 의지와 이해에 따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인식의 흐름 속에서 최근 다시 조선의 열녀를 소환한 세 편의 드라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작품들은 모두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강요하는 열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전근대의 여성에게 가장 적극적인 발언권을 줌으로써 제도를 직접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 담론이 미처 다룰 수 없었던 과부 개인의 감정과 선택에도 조명하며 관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23) 가정 내에서 가장 왜소했던 존재인 여성이 '열녀'라는 제도를 통해 '아내'라는 중심인물로 부상한 역설적 의미를 발견한 이혜순의 논의나(이혜순, 「열녀전의 입전외식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편, 앞의 책, 9-35쪽) '열'에의 헌신 안에 여성의 '사회적 자아 성취'가 녹아있었을 가능성을 논한 강진옥의 논의(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위의 책, 56-116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을 시초로 동아시아 사회에 퍼진 열 이데올로기에 주목한 리-시앙 리사 로즌리의 『유교와 여성』도 흥미롭다(리-시앙 리사 로즌리, 『유교와 여성』, 정환희 역, 필로소피, 2023). 로즌리는 이미 해방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제3세계 여성을 이론화하고 구해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비판하며, 개인적인 서구의 자아와 달리 타자와의 관계 속에 정립되는 동아시아적 자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양이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전통 속에서 열녀는 여성들에게 고유 위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연대감을 제공했으며, 과부 관행은 서민의 부인과 가족들이 사회적 영예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감이냐 명예는 생(生)이 보장된 뒤에야 가치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내(內)의 영역으로 위치 지어졌던 여성의 자아 형성 요소에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 삭제되어 있었으며, 죽은 뒤에 따라올 인정과 명예는 희생 당사자의 것이라기보다 가족 구성원의 출세가 가능했던 부계(夫系) 친족들을 위한 것이기에 무의미하다.

즉, 세 작품은 오늘날의 시청자에게 봉건적 가부장제 하의 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에 관한 동시대적 재인식을 요청하고 있다.

3. 열녀/과부 서사의 드라마 판본(板本)

세 드라마는 조선을 배경으로 과부들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전근대적 열녀제도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담아낸다. <혼례대첩>의 '정순덕'은 5년 차 청상과부이다. 정순덕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시아주버님 부부의 열두 살 난 아들을 잘 길러 출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에서 이조판서의 외동딸이던 '박연우'는 억지로 혼인한다. 그의 남편 '강태하'는 심장병을 앓던 병약한 이로 첫날 밤에 급사한다. 시어머니는 심복을 시켜 과부가 된 박연우를 우물에 내던져 살해했고, 열녀비를 받은 강씨 집안은 출사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밤에 피는 꽃>에서 '조여화'는 15년째 수절과부로 살아오며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남편의 사당에서 하루 대부분을 지낸다. 시어머니는 조여화에게 매일 남편 사당 지키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육식과 단 것을 피하기, 수백 번씩 『내훈』 필사하기를 요구한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여묘(廬墓)살이를 떠나라고 지시한다.

과부들은 모두 남편의 가문에 종속·유폐되어 가사 노동과 부양, 양육의 의무에 시달린다. 그들의 삶에는 열녀를 배출해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남편 집안의 욕망이 투사된다. 공교롭게도 세 과부의 집안에는 대를 잇고 출세할 젊은 세대의 남성이 남아 있지 않기에, 가문의 명운은 과부가 열녀가 되는 데 달려 있다. 과부들에게는 열녀문을 위한 죽음이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드라마들은 열녀/과부를 단순한 흥미 촉발 요소로만 활용하지는 않는다. 세 드라마는 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를 소환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현대 매체를 통해 재해석한 고전(古傳)의 열녀/과부 이야기는 시대의 변화를 담은 하나의 판본(板本)이며²⁴⁾, 그 안에서 동시대의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²⁵⁾

세 편의 드라마는 역사적 고증에 심혈을 기울이는 역사 드라마라기보다 다종다양한 서사적 양식을 활용해 현대의 사회상을 녹여내는 ‘퓨전사극’에 가깝다.²⁶⁾ 예컨대 중매 전문가 정순덕이 원녀와 광부(노처녀와 노총각)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혼례대첩>에서 신랑 신부 후보에 ‘1호’, ‘2호’ 등의 번호를 매기는 설정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연애 예능

24) 좁은 의미에서 ‘판에다 새긴 것’이라는 의미인 ‘판본(板本)’은 넓은 의미에서 연구 대상으로 지칭될 때 “인쇄본은 물론이고 필사본을 비롯한 다양한 제작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도서 일체를 가리킨다”(조관희, 「中國小說 板本學에 대한 초보적 검토」, 『중국소설 논총』 제1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284쪽.)

본고는 전승의 과정에서 내용적·매체 형식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판본의 성격을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띠고 있다고 판단한다. 판본이라는 용어는 어떤 담론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서적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당시에 생긴 것이다. 그 통로로서의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는 ‘판본’의 개념을 서적에 국한하지 않고, 동시대적 매체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기에, 전달되는 담론 내용의 변화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25) 특히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은 조선 후기 문인 연암 박지원의 소설 <열녀합양박씨전>에서 착안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고전을 단순한 소재적 원천을 넘어선 원작의 개념으로 본다고 할 때”, 고전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각편 혹은 이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운경, 「고전의 영화적 재해석 - 고전의 영화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문학적 대응」, 『돈암어문학』 제17권, 돈암어문학회, 2004, 102쪽 참조).

26) 염원희는 퓨전사극을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과 사건을 엮어 만든 드라마”(염원희,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의 내러티브 특징과 현대적 요소의 활용 방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9, 250쪽)라고 정의한다. 퓨전사극은 역사고증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 〈나는 솔로〉, 〈하트시그널〉 등을 연상시킨다.

특히 세 드라마가 공통으로 다루는 최근의 사회 이슈는 ‘경력 단절 여성’이다. 세 과부는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고 자 하는 인물들이다.²⁷⁾ 이들은 사대부 여성에게 사회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던 제도 때문에 너울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을 위장한 채 이중생활을 한다. 조력자들은 그들을 걱정하며 말려 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과부들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나 이들의 자아실현 욕망은 들통나고 결국 죽음으로 씻어야 할 죄가 된다.

또한 과부라는 주인공의 특성은 최근 ‘돌싱’들의 현실을 건드린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나 부양, 양육해야 할 가족의 존재 때문에 재혼을 망설이는 〈혼례대첩〉의 정순덕의 고민은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혼과 재혼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윤부겸’ 등의 인물은 비혼 담론을 상기시킨다.

이렇듯 열 담론을 통해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세 드라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드라마의 주제 의식을 바라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공식 기획 의도를 살피는 것이다.²⁸⁾

27) 〈혼례대첩〉의 정순덕은 탁월한 중매 능력을 바탕으로 ‘중매의 신’으로 활동한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박연우는 옷을 짓는 실력이 뛰어나 ‘호접선생’으로 불렸다. 무술 실력이 대단한 〈밤에 피는 꽃〉 조여화는 의적(義賊)으로 활동한다.

28) 〈혼례대첩〉 기획의도: <https://program.kbs.co.kr/2tv/drama/thematchmakers/pc/detail.html?smenu=c8e571>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기획의도: <https://program.imbc.com/Concep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밤에 피는 꽃〉 기획의도: <https://program.imbc.com/Concept/KnightFlower>
(검색일: 2024.05.27.)

(가) 정조(貞操)와 정절(貞節)의 시대에서 청상과부와 청상부마는 과연 두 번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순탄치 않은 운명 속에서 정우와 순덕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태어나 단 한 번 용기를 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혼례대첩〉 기획 의도

(나) 사람들은 말한다. '나'만 잘 살면,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된다고. (중략) 그런데 만약, 지금의 나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9세기, 함께 살아가는 게 덕목이라 여긴 조선의 유교걸이 나타난다면?! (중략) 연우에겐 그녀의 안녕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연우는 '죽음'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의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다. 그 힘에 의해 태하라는 남자를 만나 운명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 (중략) 이 드라마는 코믹하고, 달달하고 간지럽겠지만, 전하는 진심은 따뜻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노 시대엔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러나 절대 잊혀선 안 되는 사랑의 가치,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보았다.

—〈열녀박씨 계약결혼편〉 기획 의도

(다) 여인은 일생에 한 사내를 따라야 하는 일부종사(一夫從事)가 도리요, 남편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미덕이자 온전한 삶이라 여겼던 시대. 불쌍한 이는 돕고, 나쁜 놈을 잡는 것이 도리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해야 온전한 삶이라 여긴 수절과부 여화와 그녀를 만나 기억 속에 묻힌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종사관 수호의 답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한 공조 한 판. 여기, 나를 위해 밤마다 피운 꽃이 힘겨운 백성들을 위해 활짝 피었구나.

—〈밤에 피는 꽃〉 기획 의도(밑줄—인용자)

'순탄하지 않은 운명 앞에서도 사랑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혼례대첩〉,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에 운명을 뛰어넘는 사랑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는 〈열녀박씨 계약결혼편〉, '죽을 때 죽더라도

도 국법이 지키지 못하는 백성을 구하고 죽겠다는 영웅담'이라는 <밤에 피는 꽃>은 모두 작품의 주제가 타인을 향한 사랑임을 보여준다.

세 드라마에서 수절과부라는 설정은 이타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이겨내야 할 '운명'이자 '담', 역경으로 작동한다. 다른 이들보다 가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동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조선 시대에 과부라는 이들의 신분은 그들을 담장 안에 유폐시켰다. 그들에게는 시댁에 대한 노동과 죽은 남편에 대한 영원한 애도의 의무밖에 남지 않았다.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금지된 상황에서 과부들은 자신과 관계 맺는 타인들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다. 과부들이 장옷을 벗고 타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드라마 속 과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타인과 관계 맺고 더불어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혼례대첩>의 정순덕은 시댁 식구인 조예진과 조카 조근석의 행복은 물론, 중매를 선 맹 박사댁 세 딸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암살 위협을 당하는 심정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장이 안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걱을 들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도 담장을 넘는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서 박연우는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건다. 복면으로 활동하며 억압당하는 백성을 돕는 <밤에 피는 꽃>조여화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담장 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²⁹⁾

29)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제 의식을 함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OST가 있다. 드라마에 사용되는 전체 음악 중 작품의 주요 주제를 형성하는 곡들이 OST 음반으로 상업화된다. 이 곡들은 드라마 방영 중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드라마 내러티

열녀/과부를 소환한 세 편의 드라마는 수 세기 전의 열 담론을 끌고 와 공생의 이야기로 확장한다. 과부들이 처한 현실이 재혼과 비혼, 양육과 부양 등 현대 사회의 문제로 비친다는 점은, 열녀/과부라는 소재가 오늘날까지도 이야기를 끌여가는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할 줄 아는 인물의 숭고함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에 감화된다.

열 담론이 현대에 소환됨으로써 이루어낸 것으로 서사 내부에서 여성들이 해방되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세 드라마의 과부들은 모두 자신을 둘러싼 제도의 폭력을 깨닫고 의문을 품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행동에 나선다. 게다가 원하던 일을 계속하고 재혼에 성공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으로까지 나아간다. 전근대에도 여성의 발화가 부분적으로 가능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해방 및 자아실현은 21세기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루는 열녀/과부 이야기에서만 가능한 성취일

브와 직결되고, “드라마를 보지 않고도 주요 트랙을 듣는 것만으로 드라마 서사와 장르를 연상할 수 있”을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드라마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작된다(박태용, 「국내 드라마 OST의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15권,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15, 231쪽).

이러한 점에서 〈밤에 피는 꽃〉의 OST Part.2 〈칼날〉의 가사를 주목할 만하다. 〈칼날〉은 “숨을 못 쉬게”할 정도로 억압적인 조선 사회의 제도가 “도망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악몽과 같다고 이야기한다(“That nightmare turns to reality”). 과부를 포함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마치 죽은 자들(“dead people”)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백씨 부인’ 등 수절과부라는 정해진 운명 앞에 어떠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기권”을 해 버린다. 하지만 조여화에게는 마치 마지막 총알(“last bullet”) 같은 능력과 의지가 있다. 낮에는 수절과부로 가장하지만, “하얀 달빛이 드리워진” 밤이 되면 구속과 제도, 억압 등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의적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You 命을 거머쥔 칼날”은 OST의 제목이자 주제 의식을 내포하는 핵심적인 표현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유명을 거머쥔 칼날”이라 해석할 경우, 조여화가 쥐고 있는 칼날이 그녀가 희생을 감수하며 위태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You가 추임새 혹은 인칭 대명사로 쓰여 “너, 명을 거머쥔 칼날”로 해석할 때, 조여화가 약자들을 위해 구원자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것이다.

대사를 통한 세 과부의 직접적인 제도 비판은 전근대 열녀 담론이 은폐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가시화한다.

(가)

정순덕: 어머니.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내 아들을 배신하고 딴 사내에게 마음을 주더니 그 마음도 죽음 앞에서는 쉬이 버리는구나.

정: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이 사랑한 모습 그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이를 좋아한다고 하여 서방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네가 그리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알아준다는 말이냐? 넌 이제 평생 더럽혀진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것이다. 네가 웃어도 사람들은 흉을 볼 것이며, 네가 밖에 나다니면 창피를 모른다며 수군거릴 것이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 남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석을 위해서 서방님을 위해서, 그리고 대감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시: 네가 맹랑한 건 알았지만 이리 수치를 모르는지 몰랐구나. 너는 그리 구차하게 산다 해도 근석이는 무슨 죄냐. 평생 지어미의 추문을 달고 살 것이 아니냐?

(시어머니가 자결을 명하며 꺼내 놓은 장도를 내려다보는 순덕. 빼든 장도로 저고리 끝을 자름)

정: 조씨 집안 며느리로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정순덕은 결코 집안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결을 하면 누가 봐도 어머니가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근석이도 다 알 것입니다. 아가씨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그들이 가족을 미워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역시.

—〈혼례대첩〉 16회

(나)

박연우: 전하! 부디 걸음을 멈추시고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조선의 여인들이, 전하의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소녀는 얼마 전 열녀로 몰려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조판서 박재원의 여식
박연우라 하옵니다.

임금: 박연우? 네가 그 아이더냐? 그 일은 죄인들 모두 벌을 받았다 들었
는데 억울하다니?

박: 아직 받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 아직 받지 않은 자? 그게 누구지?

박: 집안을 위해서, 돈과 벼슬을 위해서 가짜 열녀를 만들려는 자들입니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허나 그건 스스로
지키려는 자들에겐 귀한 것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겐 족쇄가 되기도
하옵니다.

임: 족쇄라?

박: 열녀가 그렇습니다! 그 뜻을 기려 상을 주는 일이 계속되는 한, 전하
의 선한 백성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고 그를 악용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더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굵어 살펴 주시옵
소서.

— 〈열녀박씨 계약결혼편〉 12회

(다)

백 씨 부인: 어차피 죽을 팔자였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과부가 남들처럼
살아보고자 헛꿈을 꾸고 목숨을 연명했으니, 젓값은 달게 받아야지요.

조여화: 아니 세상에 죽을 팔자가 어딴다고. 아니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까. 뭐, 우리가 서방님 죽였습니까?

— 〈밤에 피는 꽃〉 6회

(라) 조여화: 과부는 죄인이지요. 얼굴도 모르는 지아비가 죽었다는 이유
로 평생 소복만 입고 소식하며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그저 지아비를 그리

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를 씻는 방법은 결국 지아버리를 따라 죽는 방법밖에 없지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될까 봐,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인 내가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밤에 피는 꽃〉 7회 (강조—인용자)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이들의 자각은 행동으로 이어진다.〈혼례대첩〉의 정순덕은 새롭게 찾아온 사랑 심정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담장을 넘는다. 그는 곧 심정우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옥죄어 오는 정절이라는 관념의 허위성을 발견한다.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정순덕은 자결을 명하는 시어머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에서 조선 열녀비의 비밀을 깨달은 현대의 박연우는 억울하게 죽은 조선의 자신은 물론 남편 강태하와 친정 식구들까지 살리기 위해 결연하게 과거로 돌아간다.³⁰⁾ 박연우는 시어머니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남편의 죽음을 위장하고, 시어머니를 살인죄로 관아에 고발한 후 재판에 나선다. 무죄를 주장하는 시어머니 앞에 멀쩡히 살아 있는 남편을 등장시킴으로써 시댁의 거짓 열녀비 소동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밤에 피는 꽃〉의 조여화는 오라버니의 유품 안에서 시아버지의 15년 전 역모 증거를 발견하고, 시아버지의 역적모의는 물론 그의 살인 은폐를 고발하기 위해 조정 신료들이 모인 편전에 직접 나선다.

자각-문제 제기-행동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세 과부는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때 행복한 결말이란 열 이데올로기의 폭력에서 해

30) 우물에 던져진 박연우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21세기 서울로 시간여행을 한다. 서울의 박연우는 조선의 자신과 남편은 물론 친정 식구들까지 시댁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깨닫게 된다.

방되는 것과 더불어 남성 주인공과 결합하는 로맨스의 차원으로 그려진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텔레비전의 강력한 미디어적 특성과 높은 제작비로 인해 시장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해 생산된 이야기는 시청률로 제작비를 상환해야 하므로 동시대 시청자의 취향과 선호에 민감하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대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다.³¹⁾

열녀/과부들의 ‘해방과 로맨스’라는 비현실적인 결말은 상업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²⁾ ‘N포 세대’의 등장과 지속적으로 연애와 결혼이 지양되는 시대에 ‘사랑’에 성공하는 결말은 시청자들의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전근대의 여성들이 열 이데올로기가 지닌 폭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이 명확한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매체적 상상력은 그들을 소환해 내어 궁극적으로 미소 짓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판타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³³⁾

31) 홍석경, 「멀티플랫폼 시대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미디어 문화적 접근」, 이기형 외, 『문화연구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 변화하는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 컬처북, 2018, 136-137쪽 참조.

32) “낭만적 사랑의 판타지에는 도덕이나 이상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현실적 욕망은 주로 주제들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욕구들의 구체적 형태들로 외화 된다.”(신주진, 「김은숙 드라마의 대중적 낭만주의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202쪽.)

33) 역사드라마(미스터 션샤인)에 나타난 로맨스를 분석한 양근애는 “비혼과 비연애의 시대에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로맨스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친밀성을 대리체험하게 하는 감정 산업으로 재생산”(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미스터 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29쪽)된다고 말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시각에 따라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 근래의 역사 드라마는 로맨스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대중들은 역사 드라마를 통해 “지나온 실패한 역사에 대한 차가운 질문 대신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뜨거운 이미지”(위의 논문, 147쪽)를 각인한다.

그러나 다수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은 열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간과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남긴다. 우선 과부들의 희생에 자발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 주인공의 마음씨가 따뜻함을 부각하는 동시에 남녀 주인공의 애정신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³⁴⁾ 하지만 과부들이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남성 주인공과의 사랑이 금세 이루어질 듯 묘사하는 것, 남성 주인공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현실적 문제의 해소 방안처럼 제시되는 것은 개인이 맞설 수 없는 사회 제도의 폭력성을 간과하게 한다.

드라마가 낭만화하는 과부의 '자발적' 희생은 그들의 억압 탈출이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과부에게 폭력을 가하는 실질적 주체인 시댁은 모두 역모 죄인이거나 살인범 집안이다. 과부들이 유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시댁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드라마는 이런 문제를 역모와 살인이라는 절대 악을 가져와 가볍게 해결해 버린다. 과부들이 새 사랑을 만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시댁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며, 시댁에 대한 과부들의 의무는 저버려도 마땅한 것으로 허가받는다. 시댁의 악랄한 행적은 새 삶을 찾아 나서려는 과부들을 둘러싼 현실 문제(이혼과 재혼, 육아와 부양 등)를 버릴 수 있도록 돕는다.

34) 드라마들은 과부들의 종속·유포 안에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혼례대첩>은 정순덕과 남편이 집안의 이해관계에 의해 혼인했으나 우연히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순덕이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비춘다. 정순덕은 극 중반에 이르기까지 남편을 잊지 못해 새로운 사랑을 거부하고 조씨 집안의 과부로 머무르려 한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경우, 자신의 병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혼하지는 남편의 제안에 감동한 박연우는 '소박맞기 싫다'는 이유를 들며 초야를 꼭 치르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강태하의 사후, 책임을 묻는 시어머니에게 '삼 년 상을 다 치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밤에 피는 꽃> 조여화는 남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다만 오갈 데 없어진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실종된 오라버니를 꼭 찾아주겠다고 말하는 시아버지 석지성에 대한 존경과 믿음으로 15년 과부 생활에 순응해 왔다.

결말에서 과부들은 남편의 가문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부들을 해방하는 것은 제도와 권력이다. <혼례대첩>에서 시어머니가 정순덕을 죽이려 할 때, 세자가 미리 보내 놓은 무사가 정순덕을 살린다. 왕은 법도 상 재혼할 수 없는 정순덕과 심정우를 이어주기 위해 그들의 신분을 특별히 세탁해 준다.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에서 박연우가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남편 집안의 죄를 처벌했기 때문이다. <밤에 피는 꽃>에서 조여화는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남편 덕에 왕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다. 세 작품의 열녀 수난은 모두 권력의 개입으로 일단락되는데, 이는 과부의 '주체적 윤희'와 '자발적 희생'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방증한다.

세 과부는 자유를 얻은 뒤 열녀제도에 대한 비판을 멈춘다. 해방된 후 과부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에 국한된다.³⁵⁾ <열녀박씨 계약결혼편>에는 박연우가 임금에게 격쟁하는 장면이 있지만, 박연우가 논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거짓 열녀 상소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 '죽고 싶지 않는데 죽는' 열녀가 있다는 박연우의 발언은 반대로 죽고 싶어서 죽는 열녀도 있다는 자발적 희생의 논리를 반복하는 듯 보인다. 드라마 속 과부들의 해방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행운일 뿐이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³⁶⁾

35) <밤에 피는 꽃>의 조여화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뒤, 남성 주인공 박수호와의 결합보다 계속 의적 활동을 하는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드라마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여화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언제까지나 따르겠다'고 하는 박수호의 존재는 이후 이어질 두 사람의 서사를 애정의 문제로 읽게 한다.

36) 임금으로 대표되는 권력에 기대서만 '가짜 열녀 만들기'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드라마가 강조했던 과부들의 주체성이 불완전한 것이며, 그들이 다시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에게도 수절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였던 <혼례대첩>의 경우, 심정우가 재혼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부마라는 특수한 위치에

게다가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욕망의 실현으로 보이는 드라마들의 행복한 결말이 사실상 절대 악으로 그려지는 특정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평안을 가져온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볼 수 있다.³⁷⁾ 가족들의 '행복'을 얻어내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열녀/과부, 즉 여성이다.

“역사드라마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현재적으로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실 모두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³⁸⁾고 할 때, 열 이데올로기를 배경 삼은 세 편의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행복한 결말로 미봉해 둔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열녀/과부들의 판타지적인 결말은 전근대 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소 가볍게 만드는 동시에, 동시대적 현실이 직면한 재혼, 비혼, 부양과 양육 등의 문제도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낭만화한다. 새로운 열녀/과부 서사 판본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행복한 결말을 고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성 주체의 소외라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³⁹⁾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가해진 특수한 제약을 여성에게 가해진 보편적인 억압과 등가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의(義)라는 해석은 자칫 여성에게 가해진 집단적인 억압을 보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37) <훈례대첩>에서는 정순덕이 시아주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남은 시누이와 조카를 억압에서 구출해 낸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년>에서 박연우는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암살 위기에서 구하며 조선 남편의 병간호까지 해낸다. <밤에 피는 꽃>의 조여화는 오라버니의 죽음의 배후를 밝힘으로써 국가마저도 위기에서 구한다.

38) 염원희, 앞의 논문, 265쪽.

39)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 제10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108쪽.

4. 결론

2023~2024년 세 편의 드라마가 연이어 조선의 열녀/과부를 주인공으로 소환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미 열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폐지된 21세기에 과거의 담론을 활용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 아래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서사를 직접 발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열녀/과부 소재 드라마의 의의는 충분하다.

특히 이들 드라마는 과부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음을 공통으로 조명하며, 열 이데올로기 아래 대상화되었던 그들을 한 인간으로 불러낸다. 드라마들은 과부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렸을 법한 어려움을 여러 사건으로 현재의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며, 시청자들은 그들에게 가해진 비합리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열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비판하게 된다. 드라마들은 나아가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사회상을 그리는 하나의 판본으로 소화하며, 수절과부라는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인물들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열녀들의 열 이데올로기 탈출이 남성과 법 제도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고, 남성 주인공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곧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인 것처럼 그려진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해방과 로맨스’라는 ‘행복한 결말’은 열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자칫 간과하게 만들며, 사실상 여성의 희생을 낭만적으로 포장한다는 위험도 내포한다. 이는 역사 드라마를 통해 부정적 역사와 현실의 어려움을 위로받으려는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즉 상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흔레대첩〉

〈열녀박씨 계약결혼던〉

〈밤에 피는 꽃〉

2. 논문과 단행본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12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63-104쪽.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13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51-82쪽.

노지승, 「주제 근대 전환기 한국 고전문학의 대응 20세기 열녀 담론과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열녀 표상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105-146쪽.

박용옥 편저,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박태용, 「국내 드라마 OST의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15권,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15, 223-272쪽.

신주진, 「김은숙 드라마의 대중적 낭만주의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169-210쪽.

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미스터 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23-153쪽.

염원희,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의 내러티브 특징과 현대적 요소의 활용 방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9, 249-281쪽.

이기형 외, 『문화연구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 변화하는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 컬처북, 2018.

이민영, 「1960년대 문예영화와 전유되는 ‘열녀’의 기표들—신상옥 감독의 성춘향

- (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열녀문(1962)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100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461-493쪽.
- 이수봉, 「규방문학에서 본 이조여인상」, 『여성문제연구』 제1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1, 1-34쪽.
-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 이원명, 『동야휘집 완역본 제3책』, 김종근 외 역, 황금비, 2023.
- 이윤경, 「고전의 영화적 재해석 - 고전의 영화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문학적 대응」, 『돈암어문학』 제17권, 돈암어문학회, 2004, 101-127쪽.
-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 제10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79-112쪽.
- 이흥식, 「조선시대 여성 유서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79-110쪽.
-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고전문학연구』 제11권, 한국고전문학회, 1996, 3-28쪽.
- 조관희, 「中國小說 板本學에 대한 초보적 검토」, 『중국소설논총』 제1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283-307쪽.
- 조혜란·박혜성,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 나타난 열녀 화소 수용 방식에 대하여」, 『탈경계인문학』 제1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4, 202-234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조선 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홍인숙, 『열녀X열녀: 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서해문집, 2019.
- 리-시앙 리사 로즌리, 『유교와 여성』, 정환희 역, 필로소픽, 2023.

3. 기타자료

- 김너울,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드라마 종영 소감 (<https://m.blog.naver.com/swe1123/223314705133>) (접속일: 2024.05.20.)
- 〈열녀박씨〉 박상훈 PD “해외 인기 비결? 모두 공감할 이야기” [N인터뷰]①, 『뉴스1』, 2024.01.19., 접속일: 2024.05.20., (<https://www.news1.kr/articles/52>)

378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94542)

〈혼례대첩〉 기획의도 (<https://program.kbs.co.kr/2tv/drama/thematchmakers/pc/detail.html?smenu=c8e571>) (접속일: 2024.05.27.)

〈열녀박씨 계약결혼면〉 기획의도 (<https://program.imbc.com/Concept/ThestoryofParksmarriagecontract>) (접속일: 2024.05.27.)

〈밤에 피는 꽃〉 기획의도 (<https://program.imbc.com/Concept/KnightFlower>) (접속일: 2024.05.27.)

Abstract

Chaste Woman and Widow Narrative as New Version - Focused on Television Dramas <The Matchmakers>, <The Story of Park's Marriage Contract>, and <Knight Flower>

Son, Ga-In, Choi, Yeon-Su and Kim, Chae-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rstly, analyze how the recently broadcasted chaste woman and widow narratives in the television dramas *The Matchmakers*, *The Story of Park's Marriage Contract*, and *Knight Flower* encompassed the ideology of chastity, and secondly, examine the implied messages.

Throughout history, societies have assigned various semantic systems to women's sexuality, which have evolved with changing ages and social systems. The 'Chaste woman and widow narrative' - the focus of this study - now reflects viewers' critical thinking and preferences after being reinterpreted through dramas. Consequently, this narrative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includes both narrative and media levels.

The three dramas set in the Joseon era, directly portray the violence of pre-modern moral ideology inflicted on widows. However, rather than merely illuminating these narratives, they attempt reinterpretation by addressing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such as career interruption for women, single parenthood, and discourse on singlehood. In this sense, they can be seen as modern media's new version of chaste women/widow narratives. The widowed woman setting emphasizes altruistic love, highlighting the ability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sacrifice oneself for others. Additionally, the liberation and self-realization of widows, unattainable in the past, can be viewed as an accomplishment only possible in 21st-century television dramas.

However, the commercial nature of television dramas brings limitations that overlook the violence of social institutions. While loyalty to a husband may have been an individual choice, the ensuing life of confinement and servitude represents systematic violenc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ree dramas romanticize women's navigation of social oppression through romance plots. The liberation of widows in the dramas is only accomplished by eliminating the intentionally established absolute evil that relies on law and power. The fantastical endings for the chaste women/widows trivialize the issues of pre-modern moral ideology while simultaneously suggesting that contemporary challenges such as remarriage, singlehood, and issues of support and child-rearing can be easily overcome with 'true love'.

(Keywords: Chaste woman, widow, the Ideology of chastity, media characteristics, television drama, *The Matchmakers*, *The Story of Park's Marriage Contract*, *Knight Flower*)

논문투고일 : 2024년 8월 30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21일